



즉시 배포용: 9/10/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BIDEN** 부통령과 합류한 자리에서 뉴욕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

Musolino 노동부 장관 대리,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지정하는 [최저임금보장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oseph Biden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뉴욕이 시간당 최저 임금 **15.00달러**를 채택한 전국 최초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Mario J.

Musolino 노동부 장관 대리가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시간당 주 전역 최저 임금을 올 여름 노동부 임금 위원회가 권장했던 수준인 **15.00달러**로 지정하는 명령에 서명하는 같은 날에 이뤄집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범산업적 최저 임금 인상은 패스트푸드 임금 인상 명령을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뉴욕시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적용되고,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은 **2021년 7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정규직 직원이라면 빈곤을 벗어나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공정성을 더하고 너무 오랫동안 빈곤 속에서 살아온 **220만** 명의 시민들에게 존엄성과 존중을 안겨줄 것입니다. 밝은 도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으며, 그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사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뉴욕은 가능성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회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뉴욕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미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기회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모두를 위한 경제 정의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 **15달러** 인상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지사과 부통령은 패스트 푸드 임금 위원회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 여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뉴욕시의 **Javits Center**에서 1,200명 이상의 근로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합류했습니다. 다음 달, 주정부는 선출직 공무원, 비즈니스 리더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다음 입법 세션에서 상정될 법안에 대한 지지층을 마련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Cuomo주지사는 뉴욕주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 왔습니다. 2013년,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7.25에서 현재의 \$8.75 수준으로 올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법안에는 2015년 말까지 발효될 또 다른 단계적인 \$9.00까지의 임금 인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주 노동부는 임금 위원회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2015년 12월 31일 시간당 \$4.90, \$5.00, \$5.65의 팁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간당 팁을 \$7.50까지 인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최저 임금 명령 체결

2015년 5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Mario J. Musolino 노동부장관 대리에게 패스트 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인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Fast Food Wage Board 구성원으로는 대중을 대표하는 Buffalo시장 Byron Brown, 기업을 대표하는 Gilt 의장 겸 창립자인 Byron Brown,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재무장관 비서 Mike Fishman이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임금 위원회는 뉴욕주가 패스트 푸드 체인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라고 일부분 추천하는 안건이 담긴 7월 31일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장은 임금 인상 명령에 서명했는데,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 명령은 법령에 따라 45일 이내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이제 규제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명된 임금 인상 명령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업계에서 뉴욕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u>뉴욕시</u>		<u>뉴욕주 전체</u>	
최저 임금(\$)	효력 개시	최저 임금(\$)	효력 개시
10.50	12/31/2015	9.75	12/31/2015
12.00	12/31/2016	10.75	12/31/2016
13.50	12/31/2017	11.75	12/31/2017
15.00	12/31/2018	12.75	12/31/2018
		13.75	12/31/2019
		14.50	12/31/2020
		15.00	7/01/2021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을 늘리려면 가족이 자신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현명한 투자이며, 뉴욕이 근로자들을 빈곤의 늪에서 끌어 올리는 앞선 국가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은 실제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수 년 동안, 저는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진정한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 편에 서서 투쟁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저는 처음으로 뉴욕주 임금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임금 인상 위원회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뉴욕시민을 위한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을 요구하는 데에 **Biden** 부통령과 **Cuomo** 주지사에 합류했기에 법무장관의 권리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임금 위원회가 뉴욕에 걸쳐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 다수당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 임금 인상 명령에 서명한 **Mario**

Musolino 노동부 장관 대리와 뉴욕주 근로자들의 편에 선 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의회는 오랫동안 뉴욕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노력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도 빈곤한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뉴욕과 자랑스러운 Empire State가 뉴욕주의 나머지 길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최저 임금 인상을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우리는 빈곤으로부터 많은 저소득 가정을 구하고 전체 뉴욕 지역사회 경제의 미래와 생활에 상당한 투자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진행이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곧 입법 세션에서 활약할 주지사의 지지를 통해 이 최저 임금 인상이 모두를 위한 삶을 개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Gustavo Rivera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패스트 푸드 근로자 임금 인상은 위대한 업적이며, 입법 시즌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최저 임금을 받는 모든 뉴욕시민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곳 뉴욕의 임금이 생활에 넉넉하게 해주는 이 운동을 계속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Nick Perry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근로자들은 가장 큰 중산층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주지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을 시작으로 뉴욕의 패스트 푸드 근로자들과 팀으로 생계를 잇는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주지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제안이 법제화될 수 있게 도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자 Letitia Jam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뉴욕시민들은 현재 최저 임금만으로 자신 조차도 부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의류, 임대, 유틸리티 등의 생필품을 살 비용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도 빈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달러의 시간 최저 임금을 지지하는 Biden 부통령과 Cuomo 주지사와 함께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근로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Scott M. Stringer 뉴욕시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이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담한 발상입니다. 뉴욕은 근로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오래된 자랑스러운 진보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은 가장 필요로 하는 근로자 가족이 더 많은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Mary Kay Henry SEIU 국제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행동은 오늘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높이면 자신들의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승리는 근로자 부모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여세를 몰아 우리는 전국에 걸쳐 모든 박봉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조합을 형성하고, 직장에서 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Hector Figueroa 32BJ SEIU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천여 명의 패스트 푸드 근로자들이 들었고 수백수천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강력한 캠페인과 함께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진보적 문제에 대한 방법을 이끈 뉴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주지사와 주 전역에 걸쳐 선출된 대표들이 생계를 잇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 하나로 뭉친다면 상생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누구나 성공적인 미래를 만나는 진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그 터전을 닦는 최초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 의장 George Gres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대담한 요구에 대하여 주지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든 뉴욕시민들을 위한 공정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돌보며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투쟁하는 홈 케어 직원들과 뉴욕의 의료 근로자 모두는 자신의 문제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주지사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New York Hotel & Motel Trades Council 의장 Peter 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Grand Slam을 달성한 유일한 사람은 Serena Williams뿐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Cuomo 주지사가 제시한 시간당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 제안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근로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뉴욕은 경제적 정의에 대한 민족적 운동을 이끌고 뉴욕주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뉴욕주 AFL-CIO 의장 Mario Cilen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패스트 푸드 근로자를 위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인상한 오늘의 극적 조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을 펼친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뉴욕주에 걸쳐 모든 업종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임금 인상은 근로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직장에서 존엄성과 존중은 정직한 하루 일과에 대한 공정한 일당으로 시작된다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의장 Gary

LaBarb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주지사의 지도력에 따라 뉴욕주는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 근로자를 위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은 그러한 유산의 또 다른 사례가 되며, 뉴욕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엄청난 도약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시민들은 마땅히 더 나은 임금을 받아야 하기에 곧 있게 될 입법 세션 기간 동안 전국의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Cuomo 주지사와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 편에 설 것입니다."

UFCW 산하 RWDSU(Retail, Wholesale & Department Store Union) 의장 Stuart

Appelbau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와 뉴욕주, 우리 국가를 일으키고 부유한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정도 부강하게 만드는 더 나은 경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FF 근로자에 대한 오늘의 발표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승리가 됩니다. 다음 단계에는 소매 및 기타 근로자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lbany도 이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AFL-CIO의 New York City Central Labor Council 의장 Vincent Alvar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중산층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시 노동 운동(New York City Labor Movement)은 우리 정부가 모두를 위한 경제를 낳고 뉴욕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편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Cynthia DiBartolo 뉴욕 상공회의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정적 지원과 함께 중산층의 성장과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에 Cuomo 주지사가 합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부문에서 뉴욕주를 이끌고 있으며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지사의 편에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malgamated Bank 은행장 겸 CEO인 **Keith Mestri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malgamated Bank는 최저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Cuomo주지사의 리더십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우리 은행은 자사 직원들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을 수용한 최초의 금융기관으로, 뉴욕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같은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책임 이사 **Jonathan Wes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는 그 어느 누구도 뉴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입법 세션에서 임금 인상을 위해 서약하기로 한

Cuomo 주지사와 함께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이 결국 당연히 받아야 될 존엄성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투쟁하기를 기대합니다."

Make the Road New York 공동 전무이사 **Deborah Ax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 푸드 근로자에게 축하의 날이며, 뉴욕주의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뉴욕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는 투쟁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중요한 도약입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New York City Coalition Against Hunger 전무 이사 **Joel 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일자리를 2개, 심지어 3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소 임금 인상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은 주지사가 이 도시에서 옳은 편에 서 있으며 주 전역에 걸쳐 뉴욕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임을 표명하는 신호입니다. 자격 있는 뉴욕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한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Citizen Action of New York 전무 이사 **Karen Scharff**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낮은 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공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오늘 패스트 푸드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시간당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을 확대하는 데 성공할 경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일자리들이 저임금의 시대를 종결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Food Bank For New York City 회장 겸 CEO이자 **New York State Anti-Hunger Task Force** 의장인 **Margaret Purv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시 식료품 저장실 또는 수프 주방 라인에서 근무하는 성인 5명 중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은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벌지 못하는 뉴욕시민 수가 거의 20만 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선 단체에 어려운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임금이 식량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결정입니다. 뉴욕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제안으로 기아의 주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법률 고문 **Paul Son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담한 조치로 Cuomo 주지사는 미국 전역 지도자들이 아무리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과 경영자 보상이 계속 치솟더라도 오늘 수백만여 명의 노동자 가족들을 저버린 지속적인 임금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NELP는 지난 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실질적 임금은 지난 5년 동안 모든 직업에 걸쳐 감소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은 최소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민들을

위한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습니다. 주 의회가 주지사의 요청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전국의 지도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